

“보존지원 넘어 교육현장서 활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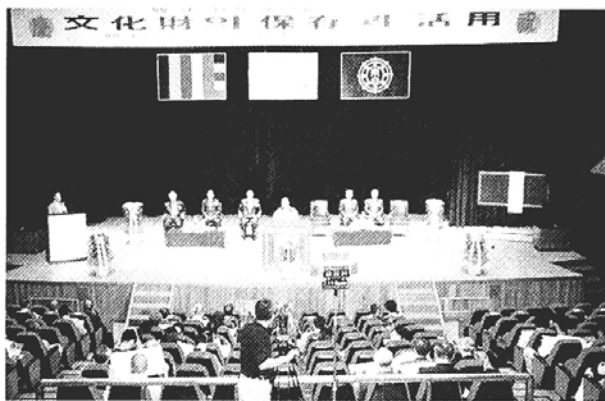
“발굴유적 문화자원화 하자”

“성보문화재 보존 주체는 국민”

동국대 ‘문화재 보존과 활용’ 국제심포지엄

활용한다면 문화재 보존 차원만이 아닌 그 이상의 파급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발굴유적을 교육현장이나 관광지 등과 같이 문화재자원화 함으로써 국민의 우리문화에 대한 이해와 애정을 높여주고, 전통문화 향수의 기회를 제공하는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것. 조씨는 발굴유적을 교육현장으로 활용하고 있는 실제로 경주 황룡사지, 익산미륵사지 등을 들었다. 이어 조씨는 “올바른 발굴유적의 보존과 활용은 먼저 우리 자신의 삶을 지탱하고 정신적 바탕이 되는 우리문화를 보존·계승하려는 성숙한 의식이 갖추어질 때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범하스님 은 각 분야의 구체적 역할로, 불교계의 전문인 양성 전담기구 설립, 정부와 관련기관의 예산편성 등 지원과 협조를 통한 동반자 역할, 일반인의 문화재에 대한 기본예의의 필요 등을 주장했다. 이어 성보문화재의 활용방안으로는 △전통문화의 터전이며 전인교육의 수련도량 △환경운동의 산 교육장 △문화창조의 원천 등을 제안했다.



18~19일 열린 ‘문화재 보존과 활용’ 국제학술회의 모습.

‘문화재의 보존과 활용-건축물을 중심으로’에서 김동현 교수(동국대 객원교수)는 문화재 활용방안으로 △활용에 앞서 철저한 규제 △전문 인내인 및 모형전시 등 필요 △추정복원 금지 △전통문화와 현대를 접목시킬 수 있는 연구기관 설립 등을 제시했다.

‘중국어사박물관 소장 문화재의 보호와 이용’에서 공상성(孔祥星·북경국립역사박물관 부관장)씨는 “중국의 문화재 보존에 대한 기본 방침은 ‘보호를 위주로 하고 구조를 제일로 하며,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합리적으로 이용하여 관리를 강화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공씨

는 “박물관은 소장품의 특징과 박물관의 성격, 임무에 의해 자체의 개성과 창의성을 발휘해야 한다”며 “각종 분야별 테마전시 등 다양한 전시전 개최를 통해 일반인들이 문화재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우치다 히로야스씨(内田弘保·日本국립박물관장)는 “일본의 문화재보호 현황에 대하여”에서 일본의 문화재 보호·보존에 관한 행정 “문화재를 보존하고 또한 그 활용

을 도모하고 국민의 문화적 향상에 기여함과 동시에 세계문화의 진보에 공헌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소개했다. 또 문화재 보호에 있어 △발굴된 매장문화재의 정리·보존 △환경의 청정화에 따른 적절한 조치 등을 과제로 제시했다.

이밖에 △21세기를 앞둔 문화재의 재인식(이상일·성공관대) 등 총 12편의 논문이 발표됐다.

김정은 기자 (jekim@buddhapia.com)

발굴유적을 단순히 보존하는 차원을 넘어 이를 교육현장이나 정신문화 계발 등의 자료로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또 현재 중국과 일본의 문화재 보존정책은 ‘효과적 보호와 합리적 이용’이라는 논리가 발표돼 우리나라 문화재 보존 기본방침에 많은 시사점을 던져주었다.

동국대 문화예술대학원(원장 홍운식)은 18~19일 동국대 90주년 기념 학술문화관에서 ‘문화재의 보존과 활용 - 21세기를 앞둔 문화재의 재인식’을 주제로 한·중·일 문화재 전문가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심포지엄에서 ‘발굴유적의 보존과 활용’으로 발제에 나선 조유전씨(국립문화재연구소장)는 “유적의 발굴 조사 이후 이를 적절히

‘성보(聖寶)문화재의 보존과 활용’에서 범하스님(통도사박물관장)은 “불교문화의 보존과 활용 문화는 한국문화의 전통계승과 창조를 위한 관건”이라고 주장했다. 또 성보문화재의 보존 가치와 의의에 대해 “전통을 계승하면서도 현재의 삶과 문화가 어우러져 있는 문화의 보고(寶庫)”라며 “성보문화재는 우리 모두가 보존을 위한 주제로 나

“불교터미널케어 연구 필요”

선우스님 주장

호스피스·말기요로·임종간호 등으로 표현되고 있는 ‘터미널 케어’를 우리나라의 종교적 풍토에 근거해 고찰하고, ‘터미널 케어’에 있어 불교의 역할을 제시한 논문이 발표됐다.

선우 스님(日 속대대학 박사과정)은 최근 석사논문 ‘터미널 케어에 있어서의 불교의 위상’에서 “터미널 케어에 대한 연구는 그 나라의 풍토에 대한 바른 이해와 고유 의식을 고찰하는 것이 선결작업”이라며 “불교의 입장에서 한국불교라는 정신적 배경을 염두에 둔 연구방법을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고려시대의 불교를 중심으로 전통사회에서의 한국인의 종교 의식 등 종교적 케어의 측면을 다룬 선우스님은 지역사회에서의 사원의 사회적 역할과 가능성을 모색했다. 특히 우리사회에 익숙한 상례(喪禮)와 관련된 ‘상도계’를 재조명하고,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 행하여지는 상부상조의 활동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것.

“상도계는 마을에 존재하는 상례에 관련된 공동조직으로서, 특히 고령화 과정에서 우리민족 특유의 놀이마당을 연출하는 등의

세 가지 측면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한 선우스님은 “상도계의 역할 속에는 ‘가족의 죽음’이란 슬픔을 극복하고 남아 있는 사람들의 삶을 위해 노력하는 한국인 특유의 해학과 지혜가 담겨있다”고 밝혔다.

이어 선우스님은 이러한 상도계의 역할을 사찰과 승려 그리고 신도라는 관계를 통해 불교적 터미널 케어의 바람직한 모습을 제시하며 “우리 사회에서 사찰은 많은 사람들의 정신적 귀의처로써 존재해야 하며 망자와 유족에게도 또한 귀의처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선우스님은 “마을의 상도계를 비롯, 마을 사찰들과 하나가 되어 상례를 치루었던 경험들이 우리의 전통문화 속에 지금도 살아있는 교유의 터미널 케어를 알 수 있다”며 “이러한 우리사회의 고유한 영역을 새롭게 해석을 하고 그 기능이 되살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정은 기자



한국-인도 불교미술 교류 ‘조명’

불교미술사학회 국제학술회의

불교미술 등에서 나타나는 불교도상의 연원이자 석굴암 등 석굴사원의 시원이 되는 인도불교미술과 한국불교미술의 교류를 조명하는 국제학술회의가 열려 관심을 모았다.

한국불교미술사학회(회장 문명대)는 19일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제 2회 국제학술회의 ‘인도미술과 한국미술의 교류관점’을 열었다.

문명대 교수(동국대)는 “카르카마에 불상의 비교연구”에

서 간다라지역의 북쪽인 스와트 카르카마에대불좌상(巖窟大佛坐像)의 조성배경, 도상과 양식의 특징 등을 고찰했다. 문교수는 “간다라 지역은 소승의 부파불교가 성행했던 대승불교미술이 많이 조성됐다”고 밝혔다. 또 “카르카마에 불좌상은 간다라불상 연구에 새로운 자료일 뿐만 아니라 동·서문화

교류, 특히 불교미술교류에 중요한 작품으로 평가된다”고 강조했다. “생사윤회도고(生死輪迴圖考)”에서 김연희 교수(원광대)는 “생사윤회도고는 시대와 목적에 따라 다양하게 도상화되었지만 끝없는 윤회의 세계에서 벗어나 윤회의 고통이 없는 세계로 나아가고자 하는 인간의 바람을 도상화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서는 스와트 카르카마의 건축(이강근·경주대) △아잔타 석화도의 배치형식과 전승(박도화·동국대) △소위 사르타의 양식의 불타상(코이츠카 류·오사카대) 등 8편이 발표됐다.

김정은 기자

국제소식

美 운전자들에게 평상심 찾아주는 우파라타나스님

찾아 안전 운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사실 이 지역에서 거주하는 운전자들에게 우파라타나스님은 잘 알려져 있다. 스님은 15년동안 타코마(Takoma) 공원의 운전 면허 이론교육장 등에서 ‘공은한

마음의 운전’을 주제로 강의해 왔다. 처음에는 15년전 개인한 실버 스프링 사원의 운영기금을 모금하기 위해 강단에 나섰다. 그러나 단순한 기술만을 교육 받았던 지역주민들에게 명상법을 적용한 안전운전 강좌는 신선한 충격이었고, 이를 계기로 우파라타나스님은 기금 모금 차원을 넘어서 전범의 방법으로 사용하게 됐다는 것이다.

우파라타나스님의 강좌가 시작된 1982년부터 이 지역은 미국에서 교통사고율이 가장 낮은 곳으로 알려지고 있다.

오종욱 기자

주머니 속 대장경 시리즈 102 - 교리·입문편. “팔만사천 법수에 담긴 깨침의 묘리”. 경전에는 숫자가 붙은 불교 용어가 무수히 많다. 불교에서는 이러한 숫자들을 가리켜 법수(法數)라 한다. 진리를 깨닫게 하는 숫자, 혹은 진리를 나타내는 숫자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쓰는 세속의 숫자와는 달리 불교의 법수는 대략 두 가지 측면의 특징을 가지는데, 하나는 부처님이 깨달은 경지에서 중생과 세계의 모습에 대해 내린 분석과 판별의 결과를 중생들에게 가르칠 때 사용했다는 점이고, 또 하나는 해탈을 이루지 못한 중생들을 해탈에 들게 하기 위해서 실천해야 될 여러 가지 방법들을 중생들에게 일러 주기 위해서 사용했다는 점이다. -머리말에서- ●이제ziel 지음● 65 변형 19쪽/값 4500원 예시아문 펴냄. 법수로 배우는 불교. 11월 23일 출간. 예시아문 펴냄. 주 소: 서울시 동구로 건지동 110-33 전화: 737-0665(영업부), 737-0691(편집부), 737-0697(팩스)

근기와 재치가 요구되는 ‘인종에서 유대교, 불교, 기독교 내의 바다’ 인터넷을 향해할 때 운동계도 잘 정리된 각 정보마다 상세한 자료를 올려놓은 사이트를 찾는다면 ‘정보의 바다’를 제삼 실감할 수 있다. 네티즌의 즐거움은 여기에서 출발한다. 미국의 세계종교연구소와 일본의 국제선학연구소는 불교학술 사이트로는 드물게 네티즌의 즐거움을 배가하는 사이트이다. 세계종교연구소는 아시아와 서양의 종교 및 문화적 전통을 연구하기 위한 일종의 종교교육 센터이다. 이 연구소는 서양의 가톨릭 신부와 동양 스님과의 종교적 화합을 위한 대화의 결과물이라고 볼 수 있는데, 로마 가톨릭의 유빈 추기경과 중국 불교계의 삼장 법사인 유헤스님이 ‘전(全)그리스도교회

부다피아 사이버 기행. 세계종교연구·국제선학. 종교연구·종교화합등 프로그램 다양. 선학연구·불교문헌 전산화작업 홍보.

통일주의’에 서로 영감을 받은 작업이 진행되고 있지만, 공개된 자료는 많지 않은 편이다. 세계불전전산화협회(EBTI)의 간사를 맡아 활발하고 있는 우르스 압교수가 운영하는 이 연구소에서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전산화 작업을 적극적으로 공개, 홍보하려는 노력이 돋보인다. 특히 연구소에서 발행하는 뉴스레터 ‘전자 달마’는 매달 새로운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여기에는 국내외 불교학술 뉴스, 새롭게 입력한 선종 텍스트, 불전 전산화의 현황, 선종 예술, 선종 관련 전자텍스트 활용법 등 다양한 정보들이 실려있다. 세계종교연구소 http://www.drba.org/iwrlifer.html 국제선학연구소 http://www.lijnet.or.jp/iriz/irizhtml/irizhome.htm 오종욱 기자 (gobaou@buddhapia.com)

